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청신호

새누리 광주시당, 기재부 내년 예산에 용역비 10억 반영

박근혜 대통령의 광주 대표 공약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10일 새누리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내년 예산에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을 위한 사전용역비 1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의 주요 현안 사업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지원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재 광주시당 위원장은 “지난 9일 열

린 새누리당 지역공약실천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방문규 예산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예산에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에 대한 사전용역비 10억 원을 반영기로 확답을 받았다”며 “정병국 새누리당 지역공약실천특위 위원장도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광주의 상징으로 해줘야 한다고 사전용역비 반영을 적극 지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은 내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며 총사업비 1

조3377원이 소요된다.

이 사업은 ▲자동차 전용 국가산업단지 조성(5730억원)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조성(5028억원) ▲친환경 그린카 유망기술 조성(2619억원) 등 3가지 사업으로 나뉘 추진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또 아시아문화수도 육성 공약인 디지털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경우 내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이후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광주천 생태복원을 위한 천변 구역 재개발 사업은 광주시에서 추진중인 용

역을 통해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광주~순천 전철화 조기 착공)은 내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은 광주~완도 구간 중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높은 광주~해남 구간의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중이며,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 착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민주주의 정당 건립 등 민주·인권·평화센터 조성사업의 경우는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점진강 선언문’ 발표

점진강을 끼고 있는 영호남 11개 시·군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10일 국회에서 점진강 환경문제 해결과 발전의지를 담은 ‘점진강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점진강권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 4개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순천시 제공>

“지방대 인력양성, 지역 특화산업 우선 고려를”

균형발전지방의회형 ‘지방대학 육성 세미나’서 지적

지방대학 육성 정책은 지방의 경제적·사회적 역량과 여건에 맞춰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또한 지방대의 인력 양성은 지역의 특화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에 거주하며 항구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10일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재훈 영남대 교수는 지역주도·지역기반산업 중심의 인재양성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수도권과 지방의 여건이 서로 다르므로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 육성정책 또한 달라져야 한다”며 “지방이 하고 싶은 분야, 지방이 할 수 있는 분야, 지방이 해야 할 분야 등을 구분해 수도권과 지방의 새로운 역할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가가 주도하는 지역 인재양성은 지방대학의 역할을 축소하고 이는 우수 인재의 지역대학 외면이라는 악순환을 발생시킨다”면서 “지역과 국가가 함께하는 지방인재 양성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북문수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대학의 현실과 위기’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고위공무원단 중 지방대 출신 15.8%, 최근 3년간 행정고시 합격자 지방대출신 비율 6.1% 등 지방대학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당장 지방대학 육성 및 특성과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대학입학 지역활당제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교수는 이어 “학령인구 감소가 확인한 가운데 오는 2030년 전남과 전북의 학령인구 감소율은 경기도에 비해 거의 배 이상 높을 것으로 추정. 대학 정원 감소에 따른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시욱 조선대 기획조정실장은 “수도권과 지방대 간의 차별은 물론 지방 국공립대학과 지방 사립대학의 재정지원 차등화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대학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경쟁력 평가와 이에 기초한 재정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신원형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도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지역과 지방정부가 함께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방의회도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 지방대 육성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정치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공동의장인 이재술 대구시의회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지방대학 육성방안들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실행방안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지속적인 논의의 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민주, 상향식 공천제도 혁신

오늘 광주·전남지역 토론회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향식 공천제도 혁신을 위해 지역별 순회 토론회를 갖는다.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임내현)과 전남도당(위원장 이윤석)은 11일 오후 3시 광주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민주당 상향식공천제도 혁신을 위한 광주·전남지역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조경태(최고위원) 상향식공천제도 혁신위원장, 김승남(고흥·보성 국회의원) 혁신위원, 강운태 광주시장, 조호권 광주시의장을 비롯해 지방의원, 당직자, 당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김승남 위원장은 이날 ‘상향식공천제도의 취지와 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초발제를 하고 김홍길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와 김택 전남도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혁신위원회는 각 권역별 순회 공청회를 마무리한 뒤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상향식공천제도 혁신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문순태 칼럼

20여 년 전에 소설가 김한길이가 쓴 ‘낙타는 따로 울지 않는다’라는 작품을 읽은 적이 있다. 낙타를 통해 인간의 욕망과 삶의 덧없음, 그리고 그 욕망으로 일관된 삶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소설로 기억된다.

어느 평론가는 이 작품에 대해서 “인생의 허무와 고뇌를 깊이 통찰한 자의 절망적인 낯의 쓸쓸한 불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천막을 치고, 노숙투쟁을 하고 있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 어쩌면 한국정치에 대해 심각한 고뇌와 허무를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는 오늘로 15일째 노숙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추석이 일주일 남았는데, 언제쯤 천막을 거두고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더욱이 지난 여름 휴사 속에서 촛불시위와 장외투쟁으로 몸무게가 8kg이나 줄어들 정도로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진 터

빠진 민주당을 건져 올릴 수는 없다.

국정원이 정치의 중심에 있고 불통과 단절의 상황 속에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민주당을 회생시킬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지금 김 대표는 사즉생의 각오로 외롭지만 명분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을 방관하고, 이석기 제명과 종북몰이에 새누리당과 손을 맞잡고, 대통령의 5차회담에 감응해 한다면 민주당 지지도가 현재의 22%를 넘어 새누리당을 육박하겠는가, 아니지 않나.

대선 패배 이후 계파갈등 늪에 빠진 민주당은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무더위 속에서 촛불 대통령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었으나 거절당한, 시위와 장외투쟁을 해왔고, 이석기 사태로 민주주의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말살할 것 같은, 절박한 현실을 이겨내려고 지금 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김 대표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고 싶다.

김한길 대표의 외로운 천막 투쟁

에, 노숙으로 이어진 현실이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김한길 대표는 스스로 천막을 거두기도 어렵게 되었다. 이석기 사태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규명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한 그로서는 쉽게 천막을 접을 수가 없다.

더욱이 여론조사 결과 ‘이석기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가 70%인 반면, ‘국정원이 개혁되어야 한다’가 56.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석기 사건의 불확수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국정원 개혁을 강고히 집어넣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석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의 칼날이 무디어져서도 안 되지 않겠는가. 김 대표는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관련, 박 대통령에게 선 양자회의 후 다자회의를 역제안했으나 사실상 거부당하고 말았다.

이 상황에서 김 대표는 낙타처럼 울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보수 측 일부에서는 민주당 내의 친노파에 의해 발목이 붙잡혀 있다고 비판했으나, 그것은 김 대표를 잘 모르고 한 말이다. 소설가 출신 김한길 대표는 여러 것 같으면서도 강직하고 단호한 성격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물타기가 계속되고, 국정원조사도 흐지부지 끝나고, 이석기 블랙홀에 정치가 매몰되어 버린 지금의 정국에서는 누구라도 무기력증에

김한길 대표는 노숙투쟁을 시작하면서 “대통령은 밀실에서 늘 광장을 그리워해야 하는 죄이 아니다. 밀실에서 광장의 합성을 외면하는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힘들다.”라고, 최인훈의 소설 ‘광장’을 빗대어 말했다.

최인훈의 ‘광장’에서 “사람은 누구나 광장과 밀실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 광장에 있으면 밀실이 그리워지고 밀실에 있으면 광장이 그리워진다”라는 대목이 있다. 광장에서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데 밀실에 있는 대통령은 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불통을 겪어야 한 말이다.

이제 김한길 대표의 천막을 접을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뿐이다. 박 대통령은 귀국하는 대로 김 대표가 내민 손을 잡아주어야 한다.

나는 지금 인터넷을 통해 두 장의 사진을 보고 있다. 천막당사 침대에서 잠은 갈색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의 김한길 대표 사진. ‘아이들의 공항 패선 같다.’는 바로 그 차림은 소설가 김한길에 딱 어울리는 이미지로 무척 자유로워 보인다.

그리고 또 한 장은 부인 최명길씨가 낱씨가 추워지자 담요를 가지고 둘째 아들 무진(12)군을 데리고 와, 셋이서 찍은 사진. 화목하고 정이 따스하게 깃든 가족사진이다. 이들이 추석에는 집에서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소설가>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충창로5가 버스도로점 대지777㎡(235) 공시지가 17억7천 선 오피스텔, 상가개발적합 9억6천
- 북구 유동 상업지역 대지411㎡(124) 2층건물 99평 공시지가 2억8200 매도3억
- 함평 영업 잘되는 여관과 접한 2층 주거지 땅 504평. 땅에는 생활주택적합 대출4억 매도10억5천
- 북동 고용센터 옆 상업지64평 원목적합 1억6천
- 계림동구호빌건물 대지 542㎡(164) 건평 1200평 요양시설·병의원·한의원·사육적합 18억
- 대인동 소방도로점 상업지역 786㎡(238) 오피스텔·생활주택 등 적합 9억5천

매도·임대

- 매도. 수기동 상업지역 705㎡(213) 원목·투룸·쓰리룸 92개 허가. 주택기금12억가능. 대출3억 매도7억8천
- 매도. 목포대학 입구 원목 84개 허가난 땅 476평 목포대학 확장으로 사업성 좋음. 대출2억8천 매도5억6천
- 매도. 신안군 지도읍 슬로시티중도·엘도라도 가는길. 바다가 보이는 별장용APT 모임이나 회사의 휴게시설에 적합. 30평22세대 41평5세대 대출은 8천에서 1억가능. 30평은 1억3900만원 41평은 1억8500. 임대도 가능
- 임대. 신창동 보건대학 부근 대로변 주택전시관 1층167㎡(50) 보증금5천에 월200선 임대. 조건은 조정가능
- 임대. 쌍촌동 (구)장군관사에 신축중인 호텔급 시설의 생활주택 10평형 기준 전세 1000에 월40선에 임대할. 10월초 첫 입주 지하철 쌍촌역에서 6분 거리
- 임대. 쌍촌동 가도건설의 주택전시관70평 PC방, 미장원, 찻집, 식당 등 다용도 사용가능 분할임대도 가능. 보증금 5천에 월200선 가능

☎ 문의 222-4994, 010-2632-5659
금당부동산은 가도건설 전속중개사무소입니다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근린시설임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 동구 지산동 준주거 3층근린 대지241㎡ 건평307㎡ 감정가4억
- ▷ 광산구 쌍암동 일반상업 숙박시설 대지1760㎡ 건평2821㎡ 감정가46억 최저가26억
- ▷ 나주시 송월동 상업지역 6층상가 대지545㎡ 건평2309㎡ 감정가13억 최저가7억

단독주택

- ▷ 북구 장동동 전원주택 대지1763㎡ 건평137㎡ 감정가1억8천만
- ▷ 북구 운암동 2층단독주택 대지149㎡ 건평161㎡ 감정가1억 최저가7천만
- ▷ 나주시 남내동 2층주거 2층주택 대지319㎡ 건평297㎡ 감정가2억3천만 최저가1억3천만

공장및창고

- ▷ 북구 대촌동 창고및대지 토지2800㎡ 건물303㎡ 감정가11억 최저가8억
- ▷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30억 최저가17억
- ▷ 강진읍 송덕리 냉동·저온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94억 최저가27억

토지매매

- ▷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상담용 가격조정
- ▷ 무안군 해제면 덕신리 관리지역 전,임야 3642㎡ 매매3,500만
- ▷ 광산구 지평동 자연녹지 대지.전 2115㎡ 매매5천만(조정가능)

☎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 순천법원 정문 앞, 신축건물

⇒ 농협 뒷 건물 4거리 코너

⇒ 호수공원 근접거리

순천·상가 임대

상담문의. 010-4667-9300

⇒ 1층(82평)-평당 650만원

⇒ 2~5층-평당 330만원

⇒ 각 층 분할 가능, 모든 업종가능